

## 세사르 차베스의 변모:

### 농장노동자 조직가에서 치카노 운동의 정신적 상징으로\*

박구병\*\*

단독/아주대학교

**Park, Koo-Byoung (2011) "César Chávez Transformed: From Organizer of the Farm Workers' Movement to the Spiritual Symbol of the Chicano Movement"**

#### ABSTRACT

Since the spring of 1962, César Chávez and his colleagues had launched a historical struggle for farm workers' unionization in the San Joaquin Valley of California. Events in California in 1965-1966 such as successful unionization of farm workers in the National Farm Workers' Association (NFWA), statewide boycott campaigns, and a famous procession to Sacramento promoted César Chávez to the rank of the great U.S. labor leaders. It was a historic moment that was comparable to the emergence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mid-1950s for African Americans.

Henc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César Chávez transcends the field of labor history. Indeed, he is considered to have been a great civil rights leader among Mexican Americans and other Latino groups which had suffered from 'internal colonialism' and had been treated as second-class citizens in the United States. César Chávez was able to solicit hundreds of individual stories of injustice and reweave them into a broader story of economic, political, and racial injustice that enabled him to speak on behalf of Mexican descendant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lthough César Chávez saw himself primarily as a labor organizer rather than an ethnic movement leader, the farm workers' struggle that he headed encouraged what came to be known as the Chicano movement since the late 1960s and it was embraced by many Chicanos as a part of the movement to assert pride in their ethnic heritage and affirm their cultural citizenship.

Moreover, César Chávez came across as a spiritual leader and not merely a symbol of ethnic identity. He was a pious Catholic and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8-551-A00010).

\*\* Koo-Byoung Park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history at Ajou University (Email: kbpark@ajou.ac.kr).

sincerely demonstrated his strong religious beliefs in practice such as nonviolent acts of resistance to authority, fasting, prayer, and meditation. As a result, he was also revered as if he were a political saint in a form of civil religion which was quite unusually developed for him as an exceptional leader of a social movement.

**Key Words:** César Chávez, National Farm Workers' Association(NFWA), chicano, nonviolence, religious belief / 세사르 차베스, 전국농장노동자연합, 치카노, 비폭력 노선, 종교적 신념

하나의 유령이 세상에 출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주(migration)라는 유령이다. 구세계의 모든 열강들은 이주라는 유령에 반대해 무자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심했으나 그 이동을 막을 수 없었다(Hardt and Negri 2001, 285).

155년 전 멕시코의 과나후아토에서 미겔 이달고 신부는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살해되었으나 10년 뒤에 멕시코는 독립을 쟁취했다. [...] 우리는 그동안 빈곤한 우리를 거부해온 자유와 존엄을 얻고자 또 다른 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에게 폭력이 가해진다고 해도 폭력 투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폭력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대의(la Causa)를 손상시킬 뿐이다 (Levy 1975, 184).

## 미국의 라틴아메리카화?

유럽의 팽창은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주, 인종적 혼혈, 문화적 혼성, 인종적 위계서열의 착근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달리 말하면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류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극적으로 예증하는 사례로 변모했다. 흔히 아메리카 대륙은 리오그란데 강을 경계로 북쪽의 앵글로색슨과 남쪽의 라틴 문화권으로 구분되어왔지만, 지난 한 세대 동안 라티노(Latino, 영어식 표현으로는 히스패닉(Hispanic))의 급증으로 대변되는 미국 내 인종과 언어 지형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전통적 구분은 점차 흐릿해졌다. 특히 1980년대 초부터 세계화의 영향에 따른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의 분위기와 맞물려 변경(frontier)에 대한 관심과 국경 지대(border region)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기도 했다.

2000년과 2010년 인구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라티노 인구는 약

3,530만 명에서 5,047만 명으로 증가해 총인구 대비 12.5%에서 16.3%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멕시코 출신은 2000년 2,064만 명에서 2010년 3,179만 명으로 증가했다(U.S. Census Bureau 2011, 2-3). 라티노는 미국 내 다른 인종 집단에 비해 가파른 증가율(지난 10년 간 43%, 비(非)라티노의 증가율 4.9%)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미국의 에스파냐어 사용 인구만으로도 브라질, 멕시코 다음의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수사이긴 하지만 현재 미국은 '제3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인 셈이다.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0년 공식통계에 따르면 라티노 인구는 전 주민의 37.6%(1,400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규모로 2위를 기록한 텍사스 역시 예로부터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지닌 지역으로, 특히 텍사스 남부는 라티노 문화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인구조사에 따르면 라티노는 텍사스 전체 인구의 37.6%(946만 명), 특히 18세 이하 연령 집단의 40% 이상을 차지했다(U.S. Census Bureau 2011, 5-6). 일명 '젖은 등'(wetback)이라고 불리는 '미등록(불법) 이주자'(undocumented immigrants)를 포함한다면 미국 내 라티노의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새뮤얼 헌팅턴 같이 이런 변화를 미국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거나 포섭되지 않고 독자적인 언어·문화권을 형성하면서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라티노의 도전'으로 치부하는 보수층의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Huntington 2004, 35-36), 2025년 즈음에는 공식적으로 라티노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텍사스가 멕시코로 되돌아오는 형국'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Palmer 2006, 85). 이미 아프리카계 인구 비율을 앞지른 라티노 인구는 출산과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미국 이주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적어도 2050년에는 미국 전체 인구의 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언어적·종족·적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라틴아메리카의 경계를 확장시키면서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에 따라 미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추세의 예측에 앞서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라티노는 이미 1960년대 민권운동, 반전시위, 파업 등 다양한 사회적 저항을 이끈 소수인종(ethnic minorities) 집단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아래로부터 뚜렷한 사회문화적 변화의 견인차가 되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미국 내 인종 지형을

크게 변모시킨 라티노의 급증 현상에 주목하면서 1940년대 이래 멕시코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유입 국가인 미국 사회에 어떻게 수용되고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캘리포니아 농업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평화적 시위를 주도하면서 민권운동의 지도자이자 치카노(Chicano, 멕시코계 미국인) 운동의 대부로 떠오른 세사르 차베스(César Estrada Chávez, 1927-1993)의 저항과 그 유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무엇보다 차베스는 <미국노동총연맹>(AFL)뿐만 아니라 전국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배제될 정도로 오랫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온 이주민 농장노동자의 조직화에 앞장선 인물이었다. 1965년 이래 캘리포니아 중부 델라노(Delano)를 중심으로 차베스가 이끈 노조 창설 활동과 파업은 흑인 민권운동의 흐름에 견줄 수 있는 역사적인 거보였다. 차베스의 농장노동자 운동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청년층의 저항과 더불어 미국 사회에 새로운 정치사회적 의식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치카노’(Chicano) 운동이라는 종족인종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동안 차베스의 활동을 다룬 전기(傳記)나 여러 연구는 대체로 노동운동가와 민권운동가로서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자유주의적 성향의 학자나 활동가, 치카노 운동의 시각은 차베스를 비종교화·세속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Lloyd-Moffett 2005, 42). 이에 비해 차베스가 지닌 가톨릭 신자로서의 페르소나, 달리 말해 그의 정신적·종교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 글에서는 차베스의 운동이 지니는 세 가지 측면 가운데 초창기 치카노 운동과의 관련성과 종교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차베스의 농장노동자 조직 운동이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치카노 운동의 맥락에서 어떤 비중과 위상을 지니는지 더욱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공헌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1960년대에 폭발한 다채로운 사회적 저항 속에서 차베스가 이끈 농장노동자 운동의 면모를 검토하고, 차베스의 투쟁이 치카노 정체성에 기반을 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 라티노 운동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는 맥락을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차베스 운동에 나타난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성향과 ‘세속의 구원자’로서 차베스가 남긴 유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Sí, se puede):

### 세사르 차베스와 농장노동자 운동

주지하듯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1968년 5월’로 대변되는 1960년대는 질풍노도의 시대이자 거대한 문화적 변혁의 시대로서 청년, 여성을 비롯한 새로운 주체의 운동뿐 아니라 소수인종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세계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1960년대 새로운 사회운동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인종차별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제3세계 민중과의 연대를 지향했다. 이 저항의 물결은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전개된 직접 행동을 통해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파로부터 독립적인 젊은 세대로 하여금 새로운 시민사회 조직, 일상생활, 문화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정신과 기운을 불어넣도록 고무시켰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캘리포니아 중부의 텔라노는 식용포도 재배의 중심지이자 농장노동자 운동의 거점으로 떠올랐다. 세사르 차베스는 ‘브라세로’(bracero)<sup>1)</sup> 프로그램의 종식을 요구하는 투쟁과 농장노동자 조합의 창설 과정에서 탁월한 역할을 과시하면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게 되었다. 당시 자유주의적 정치 세력은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이끌어냈고 이는 향후 차베스 운동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했다. 에리조나 유마(Yuma)의 멕시코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난 차베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작은 농장을 잃고 일거리를 찾아 방랑해야 했던 부모를 따라 전학을 수십 차례 반복하는 궁핍한 유년기를 보냈고 중등교육과정을 끝마치지 못한 채 멜론 농장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곤 했다. 차베스는 1940년대 말부터 ‘살시푸 에데스’(Sal Si Puedes)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동남부 구역에 거주했는데, “할 수 있거든 떠나라”는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곳은 오염과 빈약한 기반시설 탓에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암담한 빈민가였다(Ferriss and Sandoval 1997, 37).

차베스의 농장노동자 조직 활동에 큰 영감을 준 인물로는 도널드 맥도넬 신부와 프레드 W. 로스를 꼽을 수 있다. 맥도넬 신부는 차베스의 지역 교회 사제로서 멕시코계 이주노동자들을 돕다가 차베스에게서 지도자의 자질을

1) 이는 에스파냐어 브라소(brazo), 즉 팔(arm)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노동자’를 뜻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2)를 참조할 것.

발견하고 조인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맥도넬 신부는 특별교육을 통해 차베스에게 사회정의의 실현과 비폭력을 강조했다. 그는 차베스에게 19세기 말 교황 레오 13세가 발표한 노동문제 관련 회칙(回勅)과 간디의 전기를 읽도록 추천하고 노동조건의 향상에 대해 고민하며 인권의식을 지니도록 도왔다. 차베스는 간디의 비폭력 저항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를 도덕적 원칙이자 성공적인 독립 쟁취의 핵심적 전략으로 인식했다(León 2005, 57; García 2007, 8). 한편 로스는 <지역주민봉사센터>(CSC, Community Service Center)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조직책으로서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조직 활동을 지원한 바 있었고 마지못해 하는 차베스를 끈질기게 설득해 1952년 6월 노조조직가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었다. 한마디로 그는 “20세기의 위대한 노조조직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Shaw 2008, 48). 차베스는 로스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시카고의 사울 앨린스키 재단에서 6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자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촌과 농장노동자의 조직화를 실현하고자 CSC를 떠나 1962년 캘리포니아 중부의 산호아킨 계곡 지역에서 <농장노동자연합>(FWA, Asociación de Trabajadores Campesinos)을 발족시켰다. 연합 또는 협회라는 표현은 예전 다른 노조들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에 노동자들이 노조라는 명칭을 외면하거나 기업가들의 반발을 초래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대안이었다.

차베스는 이 단체를 1963년 <전국농장노동자연합>(NFWA, National Farm Workers' Association)으로 개편했다. 차베스는 예전 다른 노동운동 단체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노조 조직화와 파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떠맡기도 했다(Ganz 2009, 99). 그의 조직은 1965년까지 회보(el Malcriado), 신용조합, 소액의 적립금(1,700달러)과 가족사망보조금, 유급직원 2명, 회원 1,500명을 갖출 정도로 성장했다(Ganz 2000, 1024). 차베스의 김소한 생활태도와 희생정신에 감명을 받은 여러 자원봉사자들은 노조의 상근 요원으로 동참해 주급 5달러와 식대 20달러에 불과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일했다. 차베스는 노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조합원 개인이 납부하는 월 3.5달러의 조합비를 제외하고 외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다. 소액의 조합비는 헌신, 믿음, 노조의 투쟁, 희망을 상징했다. 또한 차베스는 금요일 저녁에 공개 집회와 연극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켰다.

하지만 차베스 앞에는 농장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착취나 계절적 노동의 특성 외에 농장노동자 조직화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두 가지 장벽이 놓여있었다. 먼저 대다수 유색인종으로 구성된 농장노동자들은 1935년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일명 와그너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Ganz 2000, 1019). 미국 역사 속에서 대공황 극복의 기치를 내세운 뉴딜 시대는 노조 운동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는 이 법을 통해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 파업 등 주요 권리를 보장해 주었지만 농업부문 기업가들의 간청에 따라 농장노동자를 그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노동력 부족을 호소해온 재배업자들은 1942년 8월부터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통해 멕시코에서 공식 파견된 노동자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전시 미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체결한 합법적인 농장노동자 임시 임대 협정이었다.<sup>2)</sup> 철도 관련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곧 중단되지만 농업노동자 프로그램은 임금 체불과 인권 유린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과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해 1964년 양국 정부가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여러 형태로 지속되었다. 무엇보다 농장주들은 브라세로를 대개 효과적인 ‘파업 파괴자’로 활용하거나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했기 때문에 1940년대 말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농업노동자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았다(Jenkins and Perrow 1977, 256).

더욱이 차베스의 NFWA는 재배업자들의 반발뿐 아니라 조직 활동 초창기에 <미국노동총연맹산별조합회의>(AFL-CIO), 트럭운전사(teamster) 노조 등 기존의 거대 노조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1972년 이후에는 트럭운전사 노조의 지속적인 방해에 시달려야 했다. 1955년 통합 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AFL-CIO의 위원장 조지 미니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의 폐지

2) 1941년 12월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과 1942년 브라세로 프로그램의 개시는 이전 10년 간 <세계산업노동자>(IWW,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통조림농업노동자 산별조합>, <멕시코노동자연합노조>(CUOM, Confederación de Uniones de Obreros Mexicanos) 등 주로 좌파 성향의 급진적 노동운동 조직이 전개해온 농업노동자 조직 활동의 마감을 의미했다(Alaniz and Cornish 2008, 132; Ganz 2009, 43). 1964년까지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통해 450만 명에 이르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초청되어 주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농장과 철도 보수 작업에 고용되었다. 1945년 통계에 따르면, 농업노동자와 철도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각각 5만 명과 7만 5천 명에 이르렀다. 미국 농업 분야의 고령 인력이 된 멕시코 노동자의 수는 1959년 무려 45만 명까지 증가했고, 1960년에 전국의 계절농업노동자 가운데 26%를 차지하게 되었다.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1959년 2월 말 연간 25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농업노동자조직위원회>(AWOC, Agricultural Workers Organizing Committee)를 설립하면서 처음으로 농업부문의 조직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조지 미니는 <미국노동총연맹>(AFL) 특유의 전통적 기업 노조주의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조직화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 AWOC는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향상을 목표로 농장노동자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브라세로 프로그램의 철회를 위해 AFL-CIO의 로비스트들을 지원하는 이중의 임무를 지니고 있었지만 결국 농장노동자 노조를 창설하는 데 실패했다.<sup>3)</sup> 한편 파배 관련 추문 탓에 1957년 AFL-CIO로부터 추방된 트럭운전사 노조도 1962년 독자적으로 농장노동자의 조직 활동에 착수했다.

뒤늦게 노조 창설과 대표권 확보 경쟁에 뛰어든 차베스는 1965년 9월 AWOC의 캘리포니아 중부 지부에서 활동하던 래리 이틀리온과 벤 히네스 등 필리핀계 지도자들이 약 800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식용포도 농장의 파업을 일으켰을 때, NFWA의 진로와 관련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경쟁 노조인 AFL-CIO에 소속된 필리핀인들의 ‘포도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NFWA에게 큰 모험이었다. 창립 3년 만에 성급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경쟁 노조에 흡수될 위험은 없는지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는 조직 확대의 호기로 여기고 NFWA의 멕시코계 노동자들을 결집시켜 약 2,000명을 이끌고 이 파업에 동참했다. NFWA의 결정은 상황을 크게 바꾸었다. 주요 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협상의 단일 창구로 승인받으려는 다양한 노조 간의 각축전 속에서 차베스는 AWOC를 NFWA로 끌어들이어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면서 농기업과 제휴해 방해 공작을 일삼던 트럭운전사 노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NFWA는 다른 두 거대 노조보다 앞서 1966년 캘리포니아의 농기업이자 식료품기업인 쉐리(Schenley)와 최초의 노동계약을 성사시켰다. AWOC와 NFWA는 1966년 7월 말 공동으로 <농장노동자연합조직위원회>(UFWOC)를 구성했다. 1970년 7월 UFWOC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약 7만 명의 농장노동자를 조합에 가입시켰고 “포도왕”으로 알려진 존 지우마라(John Giumarra Sr.)와 임금인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포함해 역사적인 노동계약을

3) 갠즈에 따르면, 이는 기회나 재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한적인 전략적 역량 탓이었다. 지도자의 지식정보 습득과 활용, 발견과 학습 과정, 동기 유발을 비롯한 전략적 역량의 내용과 중요성에 관해서는 갠즈의 논문(Ganz 2000)을 참조하라.

체결함으로써 주요 식용포도 재배업자들과 다년간 단체협약을 맺는 쾌거를 이룩했다(Ganz 2009, 228; Pawel 2009, 64-65). 이는 미국 농장노동자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로 기록되었다. 1972년 2월 AFL-CIO로부터 정식으로 현장을 수여받은 UFWOC는 <미국농장노동자연합>(UFW, United Farm Workers of America, AFL-CIO)으로 재탄생했다. 또한 1975년 5월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농장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농업노동관계법>을 채택했다.

차베스가 미국 노동운동 계보에서 독특한 위상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은 멕시코계 농장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넘어 민권운동의 투사로 활약한 덕택이었다.<sup>4)</sup> 차베스는 농장을 넘어 당대 민권운동의 흐름과 NFWA를 엮어 새로운 서사를 구성하고자 시도했다. 그의 창조적인 활동은 노동 쟁의와 노조 조직의 차원을 넘어 빈민을 위한 사회운동이자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민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Hammerback and Jensen 1998, 38; Shaw 2008, 27). 베트남 전쟁에 반대함으로써 더 많은 지지자들을 유입시키기도 했다. 차베스는 NFWA를 “또 다른 노조라기보다는 인간의 생활조건을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인식했다(Hammerback and Jensen 1998, 38). 물론 이는 전통적인 노조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던 조지 미니의 비난을 사게 되었고 필리핀계 지도자 히네스가 자신은 “민권운동이 아니라 노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이틀리온과 결별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다(Ganz 2009, 61, 195). 하지만 차베스는 임금인상뿐 아니라 노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파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전의 파업 관행과는 달리 새로운 목표와 지향점을 보여주었다. 전국적인 불매 운동을 조직해 무려 1천 7백만 명의 소비자가 NFWA 소속 농장노동자들이 수확하지 않은 포도의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었고,<sup>5)</sup> 이를 통해 그는 민권운동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4)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활약한 미국 노동운동가들은 흔히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계열이거나 인종적으로는 백인, 그리고 출신 직종별로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나 존 미첼(John Mitchell) 같은 광산 노동자였다. 또 지미 호파(James Riddle “Jimmy” Hoffa)가 지닌 ‘악한’의 이미지와 그로 대변되는 트럭운전자 노조의 부패는 악명이 높았다.

5) 당시 미국 국방부는 포도 재배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50만 파운드의 포도를 베트남 참전 병사들의 보급품으로 구매할 바 있었다(Shaw 2008, 43). 한편 차베스의 투쟁은 농장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조건을 알리고 특히 화학 살충제의 오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일찍이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Shaw 2008, 36, 123). 1968년 6-7월 일단의 농장노동자들이 분무식 살충제에 장시간 노출된 뒤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자 차베스는 농장노동자들을 살충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Levy 1975, 196; Gordon 1999, 56). 차베스의 요구에 호응한 환경단체들은 미국 환경보호국에 농장의 살충제 사용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기 시작했고 포도와 상추 불매 운동에도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다(Gordon 1999, 53).

또한 차베스는 NFWA의 틀 속에 농장노동자들의 가족을 포함시켜 더 많은 이들이 노조 운동의 일부라고 느끼도록 유도했고 공제조합을 통해 주민 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는 외부의 뚜렷한 지원 없이 파업 기금이 불충분한 상태에서도 장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Ganz 2000, 1024, 1031). AWOC가 일터 위주, 지역 차원, 단기적 조직 활동에 주력했다면, NFWA는 지역 공동체와 캘리포니아 전역, 그리고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수립했다. 차베스는 가족 단위 활동 모델을 제시하면서 농장의 파업을 가족의 파업과 지역 공동체의 불매 운동으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García 2007, 15; Shaw 2008, 35-36).

## 노동운동가에서 치카노 운동의 지도자로

차베스의 농장노동자 조직 활동은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회적 저항 가운데 특히 소수인종의 사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었다. 소수인종에게 시민적 권리란 정치·사회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 권리의 인정, 즉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긍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였다(García 1994, 232; 2007, 2). 흑인 민권운동의 여파 속에서, 예컨대 1966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창설된 <흑표범단>(Black Panther Party) 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급진적 정치 운동이 멕시코계 미국인 고등학생들의 브라운베레(Brown Berets) 운동에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변혁 열기는 라티노 조직 운동의 활성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젊은 세대는 미국의 주류 사회가 범주화한 멕시코계 미국인(Mexican Americans)이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치카노’라는 용어를 채택하면서 ‘미국 내의 타자’로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멕시코계 미국인이란 다양한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모호하고 일괄적인 호칭이었고 주류 사회가 피부색, 복식문화, 에스파냐어,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주 1세대와 2세대의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백인 주류 사회로의 편입과 동화(同化)를 지향했다(Rosales 1997, 94). 1929년 텍사스에서 설립된 <라틴아메리카계미국시민연맹>(LULAC,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은 그런 정서를 반영하는 대표적

단체로서 회원의 가입 요건은 영어 사용 여부였다(Rodríguez and Ruiz 2000, 1694-1695). 뒤이어 제2차 세계대전 시기는 적극적인 참전을 통해 지위 향상을 모색하려는 멕시코계 미국인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 동시에 좌절을 안겨주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 즉 1942-1943년의 ‘슬리피 저수지’(Sleepy Lagoon) 판결과 1943년 6월 초 ‘주트 수트’(Zoot-Suit) 사건<sup>6)</sup>은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격분하게 했다. 슬리피 저수지 판결은 로스앤젤레스 강 옆의 저수지에서 발생한 멕시코계 미국인 소년에 대한 살해 혐의로 기소된 17명의 멕시코계 미국인 청소년에게 시종일관 판사가 공공연히 인종차별적 태도를 드러내다가 기소를 수용한 사건이었다. 1944년 17명의 피고인들은 고등법원에서 기소 파기 판결을 얻어냈지만 이미 명예가 손상된 뒤였다. 로스앤젤레스의 신문들은 이 사건을 왜곡 보도함으로써 반(反)멕시코인 정서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변호인단이 적시했듯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단지 멕시코계 미국인 청년 17명”이 아니라 멕시코인 전체, 나아가 약 1억 3천만 명의 라틴아메리카인 전체, 그리고 ‘선린정책’이었다(Gutiérrez 1995, 128).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미국의 충성스런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 사건에서 드러나듯 인종적 편견과 경찰의 차별 관행, 선동적인 언론 보도의 희생자가 되었음에도 주류사회로부터 미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에 참전한 멕시코계 미국인의 수는 소수인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불필요한 존재’로 보는 미국 주류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다. 로돌포 아쿠냐가 인용한 미국 인구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1960년 미국의 서남부에 거주하던 3,464,999명의 라티노 성(姓)을 가진 주민들의 월 평균수입은 968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백인 평균인 2,047달러는 물론이고 비(非)백인의 평균인 1,044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Acuña 2007, 243-244).

이런 배경 속에서 1960년대에 접어들어 멕시코계 미국인의 조직 운동은 통합과 동화를 지향하는 기존 노선의 한계를 실감하고, 독자적인 ‘민족주의’를

6) ‘주트 수트’란 전쟁 기간에 유행한 독특한 복식문화였다. 백인 해군 수병들이 주트 수트 차림의 멕시코계 미국인 청년들을 집단 구타했을 때, 다수의 백인들이 환호하면서 폭행 장면을 지켜보았고 더욱이 헌병과 지역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인 멕시코계 미국인 청년들을 연행했다(Ferriss and Sandoval 1997, 44; Rosales 1997, 103).

강조하거나 더욱 급진적인 형태의 분리 운동으로 방향을 틀었다(Lee 2006, 158-161).<sup>7)</sup> 달리 말하면 통합의 시대에서 ‘급진적 민족주의’의 시대로 전환한 것이었다(Gonzalez 2000, 170). 차베스의 농장노동자 조직화와 불매 운동 역시 얼마간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차베스의 운동보다 한층 더 독자적인 종족문화 정체성을 강조하고 과격한 요구사항을 내건 운동 세력으로는 미국이 강제 점령한 뉴멕시코의 토지를 멕시코계 미국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강경 투쟁에 나서기까지 한 레이에스 로페스 티헤리나의 <연방토지양도동맹>(Alianza Federal de las Mercedes), 콜로라도 덴버에서 로돌포 ‘코르키’ 곤살레스<sup>8)</sup>가 주도한 <정의의 십자군>(Cruzada), 1970년 남부 텍사스에서 호세 앙헬 구티에레스가 출범시킨 <치카노연합정당>(La Raza Unida Party) 등을 꼽을 수 있었다(Gutiérrez 2009, 109).

치카노라고 자칭한 미국 서남부의 젊은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사회적 변화를 위한 저항의 물결에 합류했고 인종차별적 태도와 편견에 맞서 특유의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치카노 세대’는 통합이 아니라 치카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치카노 문화의 고양과 정체성 강화를 모색했다(García 2007, 20). 본래 치카노라는 용어에는 경멸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sup>9)</sup> 치카노는 20세기 초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멕시코계 미국인들

7) 고메스-키노네스(Gomez-Quinones 1990) 또한 1960년대 이전의 멕시코계 미국인 운동이 미국 사회로의 신속한 동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면, 1960년대 이후에는 그 실패를 인식하고 ‘치카노’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획득을 꾀하는 일종의 분리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고메스-키노네스는 1960년대 치카노 운동을 학생과 중산층 중심의 운동, 즉 치카노 사회운동사의 자유주의적 단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생 운동가 출신인 무뇨스(Muñoz 2007)는 1960년대 치카노 운동을 단지 기존 운동의 특정한 단계로 인식하지 않는다. 무뇨스는 학생들이 전면에 나섰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치카노 정체성을 강조했으며 그들을 결코 중산층으로 범주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1960년대 운동을 기존 운동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파악한다(Kim 2008, 2-3).

8) ‘코르키’(Corky)는 그의 폭발적인 웅변술에 감동한 이들이 ‘마치 코르크 마개를 따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다(Kim 2008, 30). 곤살레스는 소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멕시코계 미국인 사회운동의 통합을 선결조건으로 여겼다. 곤살레스는 전국의 멕시코계 미국인을 하나로 묶어낼 구상을 세우고 먼저 다양한 세력으로 나뉘어 있던 학생운동 조직의 통합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정의의 십자군>의 근거지인 덴버에서 1969년 3월 제1차 ‘전국치카노청년해방회의’를 개최했고 여기에는 주로 서남부에서 활동하는 멕시코계 미국인 청년 단체 회원 1,500명이 집결했다. 당시 ‘치카노’라고 자칭하던 청년들은 치카노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 회의를 통해 치카노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9) 이는 작은 꼬마나 소년을 뜻하는 ‘치코’(chico)에서 비롯되었지만 일부에선 ‘멕시코인’(mexicano)의 발음이 변형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1930년대 말 이래 갖 이주해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한 신참 동족을 낮춰 부르는 표현이었다(Rosales 2006, 82). 달리 말해 치카노는 원래 하나의 종족이나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멕시코계 미국인 내부의 사회경제적 계급 차이를 반영하는 용어였다(Gutiérrez 2001, 382).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치카노는 비하와 경멸의 의미를 벗고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독특한 문화적 자산, 종족 또는 인종적 배경과 정체성을 긍정하는 자기 확인의 표현으로 변모했다(Gutiérrez 2001, 383). 이를 통해 그들은 치카노라는 ‘피식민 소수 민족’ 집단의 결속을 도모하고자 했다(Gutiérrez 2009, 101).

가장 극적인 자기 확인은 제1차 ‘전국치카노청년해방회의’의 ‘아스틀란 정신 강령’(El Plan Espiritual de Aztlán)에서 엿볼 수 있다.

스스로 역사적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 아니라 난폭한 ‘그링고’(gringo)가 우리 영토를 침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선조의 고향 아스틀란, 즉 북부의 치카노 주민과 문명인들이 우리의 불가피한 운명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 아스틀란은 씨앗을 심고 곡식을 수확하는 이들에게 속한 것이지 유럽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 우리는 이방인(Gabacho)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메스티소 국가의 독립을 선언한다(El Plan Espiritual de Aztlán 1972, 402-403).

이 선언은 치카노를 미국의 건국에 훨씬 앞서 존재한 아스테카 문명의 발원지 아스틀란의 후예로 공표하고 아스틀란, 즉 현재의 캘리포니아 남부가 탐욕스러운 ‘그링고’에게 점령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말하자면 치카노는 국경을 넘어온 이주민이 아니었지만, 국경이 움직여 그들을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주조해냈을 뿐이다(García 2007, 4). 치카노 역사에 대한 신화적 해석과 전유(專有)를 통해 치카노 운동가들은 그들의 투쟁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 재정립하고 영토 회복의 정당성을 역설했다(Klor de Alva 1998, 71-72; Chun 2003, 272). 또 치카노의 현실은 백인들의 인종 차별과 억압의 결과라는 점을 역설했다. 로돌포 아쿠냐(Acuña 2007)는 치카노 운동을 1960년대 말에 등장한 사건이라기보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운동으로 해석한다. 달리 말해 아쿠냐에게 치카노 운동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저항하는 ‘점령된 아메리카’(Occupied America), 즉 내부 식민지 피억압 대중의 역사적 투쟁이자 자기 회복이었다(Gutiérrez 2009, 105).<sup>10)</sup>

10) 로레나 오로페사 같은 연구자는 베트남 전쟁과 치카노 운동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1960년대 중반 차베스의 성공적인 노동 쟁의는 치카노에게 억압과 차별의 극복을 위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대다수 치카노 운동의 주도자들과 청년층이 차베스의 조직과 불매 운동에 참여했다. 나중에 공연예술가로 명성을 얻게 되는 루이스 발데스(Luis Valdez)는 ‘농민극단’(el Teatro Campesino)을 이끌고 차베스가 개최한 금요일 밤 회합에서 치카노에 대한 차별과 그에 맞선 저항을 비롯한 정치적 메시지, 그리고 멕시코의 문화적 유산을 멕시코 전통 발라드인 코리도(corrido)와 연극에 담아내는 데 탁월한 재능을 선보였다(Chun 2003, 289). 차베스는 자신을 치카노 운동의 지도자라기보다는 노조조직가로 인식했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치카노 운동의 일부로 인정받았다(Martínez 1998, 199).

물론 치카노 운동이 결코 단일한 면모와 형태를 띠지 않았다는 점과 과연 치카노의 의미가 멕시코계 미국인 전체를 규합하는 포괄적인 정체성으로 기능했는지에 대해선 좀 더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치카노에게 말하자면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지도자가 부재한 가운데 농장노동자뿐만 아니라 치카노 운동의 활동가들로부터 비교적 고른 지지를 받고 있던 차베스는 공공장소의 인종 격리에 저항한 치카노 ‘로자 파크스’(Rosa Parks)이자 “인도 없는 간디”로 비취졌다(García 1994, 229, 231; León 2007, 861). 차베스는 비폭력 노선을 강조하면서 치카노 운동의 급진적 분파를 비난한 바 있었고, <치카노연합정당>의 활동에 협력하기보다는 농장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제시한 민주당을 지지하고 로버트 F. 케네디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었다(Muñoz 2007, 18). 따라서 차베스의 온건한 비폭력 노선이 치카노 운동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거나 차베스는 치카노 지도자라기보다는 다인종 노동자들의 지도자였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Muñoz 2007, 17). 무노스에 따르면, 광범위한 치카노 운동에 대한 차베스의 관심 부족이 결국 루이스 발데스와 ‘농민극단’ 같은 충성파의 이탈을 초래했다(López 1992, 83). 특히 쿠바혁명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던 치카노 급진파의 ‘제국주의 극복론’에 비해 차베스의 노선과 접근방식은 매우 현실적이었다(León 2007, 863).

---

오로페사는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인과 치카노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유발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치카노 운동가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희생양인 베트남인들을 또 다른 피억압민족인 치카노와 같은 처지로 인식했고, 이런 연대 정신을 치카노 운동 시위 현장에서 반전 구호로 표출한 것이었다(Oropeza 2005, 94-98).

무노스의 주장대로 차베스를 치카노의 지도자로 보긴 어려울까? 1965년 9월 파업과 불매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차베스는 치카노 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베스와 NFWA는 치카노에게 익숙한 문화적 상징과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그들을 전국적인 무대로 이끌었다. 차베스는 아스테카의 검은 독수리를 형상화해 NFWA의 깃발을 만들었고 1965년 9월 16일 멕시코의 독립기념일에 텔라노의 과달루페 성모(virgen de Guadalupe) 교회에서 집회를 개최했으며 멕시코의 농민혁명가 에밀리아노 사파타의 초상화를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공유하는 종교적·문화적 서사나 도덕적 전통에 호소했다. 아울러 차베스는 1966년 9월 초 텍사스의 치카노 행진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Ganz 2009, 206). 그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 자신이 치카노 사회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Acuña 2007, 254).

## 차베스의 비폭력 노선과 종교적 신념

1965년 가을 텔라노의 포도 파업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종교적·정신적 차원에서도 차베스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무엇보다 농장노동자들의 투쟁을 종교적·정신적 차원에서 재구성해 식용포도 파업과 불매 운동, 나아가 농장노동자 운동의 대의에 대한 지역 교회의 호응을 이끌어낸 점은 차베스의 주목할 만한 업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의 투쟁에 깊은 감명을 받은 차베스는 이들을 조직 활동의 모범으로 삼았고, 경건한 가톨릭 신자로서 초월적인 존재의 위엄과 영감에 의지하는 종교적 신념, 그리고 비폭력 노선과 인권 존중의 정신에 의거해 농업노동자들의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는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치카노 노동자들을 한 데 묶는 구심점이 되었고 차베스는 치카노 사회운동의 지도자를 넘어 예언자적 존재로 부상했다(Dalton 2003, 155; León 2007, 867, 873). 이를 계기로 차베스는 20세기 위대한 영성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García 2007, 1).

비폭력에 대한 그의 종교적 신념은 피켓 시위를 비롯해 파업 투쟁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살해된 노조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순교자’로 승격시키는 연설의 밑바탕이었다(Jensen *et al.* 2003, 343). 가톨릭 사제와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은

차베스의 투쟁을 적극 후원했고 차베스의 예언자적 메시지와 활동은 동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치카노가톨릭신도회>(Católicos por la Raza)가 출범하는데 영감을 불어넣었다(León 2005, 59). 이 신도회는 가톨릭교회가 부유하고 화려한 조직에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반면, 치카노 빈민들의 생활조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시설에 관심을 갖는 데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차베스는 민권운동과 치카노 운동의 차원을 넘어 도덕적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비폭력의 투사이자 정신적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차베스는 불매 운동을 노조 조직화와 전반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민권운동인 동시에 일종의 정신적 사명으로 인식했다(Shaw 2008, 38). 차베스와 NFWA는 소비자 불매 운동의 전개, 조합원들의 시민 활동 참여 독려, 조합원 투표와 관련된 연락 강화, 대중매체의 관심 유발 등 향후 진보적 운동 단체가 활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고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와 연대하고 경제적 정의와 관련된 사안들을 도덕과 종교적 정의의 문제로 재정립시키는 데 기여했다(Shaw 2008, 5). 신과의 만남, 신앙고백, 예수를 따르려는 선택은 차베스를 움직인 주요 동력이었고(Hammerback and Jensen 1998, 153), 만일 이 요소를 제외한다면, 차베스의 운동은 단지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지 모르나(Lloyd-Moffett 2005, 43). 달리 말해 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세속화한 정의와 비폭력의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종교적 영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Lloyd-Moffett 2008, 107).

비폭력 노선에 바탕을 둔 차베스의 창조적 투쟁은 먼저 1966년 3-4월 포도 불매 운동에 대한 농기업 켈리의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상한 도보 행진으로 구체화되었다. 차베스와 NFWA는 텔라노에서 새크라멘토까지 약 450km의 행진을 벌여 전국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차베스는 하루 24km씩 20일 동안 행진하는 일정을 마련하고 켈리의 캘리포니아 지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대신에 주지사 에드먼드 브라운(Edmund G. “Pat” Brown)의 집무실이 있는 새크라멘토를 최종 목적지로 정했다. 당시 브라운은 재선 출마를 노리고 있었는데 차베스는 이 틈에 브라운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을 구상했다.

차베스는 1966년 3월 17일에 시작한 저항의 행진을 ‘순례’(peregrinación)라고 불렀다. 앞서 7개월 동안 NFWA는 신생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농장노동자의 파업을 주도하면서 감시선, 파업 파괴자, 체포의 위협, 경제적 불안, 절망을 이겨냈다. 이 행진은 포도 파업과 불매 운동의 절정으로서 사회정의의 실현에

관한 농장노동자들의 요구와 치카노 공동체의 새로운 목소리를 또렷하게 표출했다. 차베스는 이 행진이 “길고 긴 투쟁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육체적·정신적으로 단련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Levy 1975, 207), 역경 속에서 고통을 받아온 문화적 소수자의 순례로서 이 행진이 지닌 강한 종교적문화적 함의를 강조했다(Hammerback and Jensen 2002, 15-16). 더욱이 성조기, 멕시코 국기, NFWA의 깃발, 멕시코의 수호성인인 과달루페 성모의 깃발을 앞세우고 전개된 이 행진은 수난주간(受難週間)에 절정에 이르러 부활절인 4월 10일 캘리포니아 의사당 앞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를 통해 차베스는 농장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새로운 지지 세력을 모으고 불매 운동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을 집중<sup>11)</sup>시키는 한편 사순절(Lent)을 준수하고자 했다(Ganz 2009, 3-4). 그런 차원에서 차베스와 NFWA의 대변인 돌로레스 우에르타는 이 행진의 목표를 ‘순례, 참회(penitencia), 혁명(revolución)’이라는 세 가지 구호로 요약했고, 매일 미사와 사순절 참회 의식을 거행하며 농장노동자들의 희생과 고난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적 일체감을 극적으로 고양시켰다(Dalton 2003, 86; Shaw 2008, 82).

또한 새크라멘토로의 행진 도중 루이스 발데스는 영어와 에스파냐어로 델라노 강령(plan de Delano)을 발표하고 통과 지역에서 이를 낭독함으로써 멕시코혁명기 농민 지도자 에밀리아노 사파타가 아얄라 강령에서 역설한 토지개혁과 자유의 요구를 상기시켰다. 델라노 강령은 “지난 백 년 동안 멕시코인들의 희생을 목격해온” 계곡의 길과 여러 도시를 거쳐 가는 NFWA의 행진이 수 세대에 걸쳐 지속된 고난에 대한 증언이라고 밝혔다. 그들에게 “참회는 이 도시와 계곡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겪은 고통을 상징하고 순례란 우리에게 필요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참회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지나간 역사적 경로와 앞으로 가야 할 긴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었다(Hammerback and Jensen 2002, 16, 19). 그렇다면 차베스와 NFWA에게 혁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차베스가 추구한 혁명은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혁명’이었다. 그에게 폭넓은 도덕 개혁 운동은 사회혁명의 일부였다(Hammerback and Jensen 1998, 38). 차베스는 노조의 활동을 “단지 파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노동자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11) 당시 상원의원으로서 농업노동의 현황에 대한 소위원회회의 청문회를 이끌고 있던 로버트 F. 케네디는 3월 말 이 행진이 펼쳐지고 있을 때 직접 델라노를 방문한 바 있었다.

돕고자 하는 정신과 생존양식을 지닌 집단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역설하는 (Ganz 2009, 89) 한편 정신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의 문화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García 2007, 68-69).

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텔라노 강령의 3조는 교회의 지지와 합심 기원을 호소하면서 탐욕과 억압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선의를 지닌 모든 이들의 의무라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Rerum Novarum*)을 짧게 인용했다 (Hammerback and Jensen 2002, 17, 20). 4조는 농장노동자들이 대의(*la Causa*)의 실현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고 5-6조는 단결, 평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호소를 담았다. NFWA는 농장노동자들이 미국 내 다른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면서 공정한 임금, 더 나은 노동조건, 더 나은 미래를 요구했다. 또한 농장노동자들을 ‘멕시코혁명의 계승자’로 지칭하는 급진적 수사와 함께 과달루페 성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도 잊지 않았다 (Hammerback and Jensen 2002, 17-18, 20-21). 텔라노 선언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고난이라는 주제의 부각이었다. 선언에서 고난이란 농장노동자들이 매일 겪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빈곤과 학대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해방시키고자 농장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불이익과 역동적인 희생정신을 의미했다(Dalton 2003, 89; León 2007, 872).

농장노동자들의 곤경과 관련해 저항의 행진보다 훨씬 더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차베스의 단식 투쟁이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차베스의 단식 투쟁은 1968년 2월 중순 미국 최대의 농기업 지우마라를 상대로 한 파업과 불매 운동 당시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25일 동안 감행한 것이었다. 이는 UFWOC의 비폭력 원칙에 대한 재확인이었다. 차베스의 단식 투쟁 현장인 텔라노 서쪽의 ‘40 에이커(Forty Acres) 농장’은 수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성지(聖地)가 되었다.<sup>12)</sup> 로버트 F. 케네디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고 1968년 3월 10일 차베스가 단식을 마쳤을 때, 케네디를 비롯해 약 4천 명의 지지자들은 미사에 참여해 성찬을 나누었다. 케네디는 차베스를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칭송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차베스의 단식 투쟁을 지지하는 전보를 발송해 “우리가 각기 별이는 투쟁은 실상 하나입니다. 자유, 존엄, 인류애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단식 투쟁이 결과적으로

12) 차베스의 생애와 유산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2011년 2월 말 ‘40 에이커 농장’을 ‘미국의 역사적 장소’(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했다.

조직화의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평가(Shaw 2008, 87)가 있긴 하지만, 차베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것은 전략적 행위가 아니라 “기도와 사랑의 행위”였다(Matthiessen 1969, 180; León 2007, 873). 더욱이 그것은 “정의 실현하려는 비폭력 투쟁 과정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가장 진실하고 강력하며 용감한 행위”였다(Hammerback and Jensen 2002, 167).

또한 차베스는 ‘데 콜로레스’(De Colores)를 농장노동자 조합가로 정해 집회에서 함께 불렀다. ‘데 콜로레스’는 1950-1960년대 가톨릭교회의 쿠르시오(cursillo)<sup>13)</sup> 운동에서 비롯된 종교적 색채가 강한 노래였다(Hammerback and Jensen 1998, 39). 또한 이 노래의 여러 구절은 농장노동자에게 익숙한 작업 환경이나 그들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고 알려졌다. 어쨌든 일부에서 차베스와 NFWA의 활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했을 때, 차베스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계의 후원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Shaw 2008, 37).<sup>14)</sup> 차베스의 종교적 성향은 냉전적인 ‘색깔 공세’로부터 자신과 농장노동자 운동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방어막이 된 셈이었다. 실제 차베스는 좌파의 정치적 의제와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치적 운동과 독자적인 조직 활동, 그리고 상급 조직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했다.

## 맺는말

차베스의 장례식이 열린 1993년 4월 29일, 3만 5,000명의 참석자들은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 델라노에서 약 4.8km의 거리를 행진했다. 앞서 20년 동안의 퇴보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함께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일종의 도덕적 책무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자리 잡고 있었다.<sup>15)</sup> 같은 해 5월

13) 이는 ‘과정’(course)을 뜻하는 에스파냐어 curso의 축소사로서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단기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쿠르시오 운동은 1963년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평신도 중심의 신앙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운동은 미사, 강요, 나눔 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만, 흔히 교육이라기보다는 목상수련회 또는 ‘회심을 위한 단기 피정’으로 알려졌다. 차베스는 쿠르시오 수련회에 수차례 참석한 바 있었다.

14) ‘미국적 가치와 이상’을 수호한다는 미명 아래 ‘의심스러운 위협인물’, ‘공산주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자행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미행과 사찰 행위에 관해서는 비밀분류 해제된 차베스 파일(FBI files)과 스트리트의 논문(Street 1996)을 참조하라.

말 일부 라티노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치카노 연구(Chicano Studies) 프로그램을 학과(學科)로 승격시켜줄 것을 학교 당국에 요청하면서 비폭력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차베스의 투쟁에 깊은 감명을 받은 학생들은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가로지르는 27km의 행진을 전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캠퍼스 차원을 넘어 공적인 관심사로 확대시켰다. 1993년 6월 7일까지 2주일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학생 대표들은 지역 공동체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결국 UCLA 총장은 기력이 쇠한 학생들과 치카노 연구 학과의 신설에 합의했다(Martínez 1998, 222). 신설 학과는 차베스의 업적과 유산을 기념하려는 취지에서 ‘세사르 차베스 치카나/치카노 연구 학과’로 명명되었다.

일부 젊은 세대 활동가들은 교회와의 적극적 연대를 경계하며 차베스의 노선이 더 이상 치카노 운동의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막대했다. 첫째, 차베스의 조직 활동은 빈곤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농장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다. 1960년대 중반 이래 농장노동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본적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둘째, 차베스의 투쟁은 대다수 유색인 농장노동자들을 비롯해 미국 내에서 ‘내부 식민지’ 주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치카노에게 독자적인 종족적·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지를 선사했다. 그리하여 차베스는 후속 세대에 의해 치카노 운동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재정의되었다. 셋째, 차베스는 특정 종족의 영웅을 넘어 세속의 성인(聖人)이자 예언자적인 전망을 지닌 정신적 지주로 기억되었다.

캘리포니아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1년부터 차베스가 탄생한 3월 31일을 기념일로 준수하고 있다. 그 뒤 텍사스, 애리조나, 콜로라도 또한 이 기념

---

15) 1970년대 중반 이래 보수적인 재배업자와 의회, 리처드 닉슨이나 로널드 레이건 같은 공화당 정치인들의 영향력 아래 <미국농장노동자연합>(UFW)은 힘과 회원 수를 잃었다. 예컨대 1980년대 중반 UFW 소속 노동자들이 수확하는 캘리포니아의 포도는 전체의 3%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대규모 재배업자들은 UFW를 회피하면서 트럭운전자 노조 소속의 노동자들을 채용하거나 흔히 수많은 미등록노동자를 활용하곤 했다(Martínez 1998, 94-95). 아울러 차베스가 말년에 조직가에서 관리자로 변모하면서 내부 갈등과 분열, 내부 민주주의의 약화, 족벌주의 등 문제점이 불거지기도 했다(Ganz 2009, 246-247). 1980년대 초 UFW의 변화 양상과 관련해 1981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게재된 기사의 제목 “‘대의’로부터 멀어져 ‘사무노조’로 탈바꿈하고 있는 UFW”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León 2007, 864). 이런 비판 외에 1980년대 초부터 독자노선을 모색한 ‘UFW 출신의 활동가’(UFW alumni)들의 새로운 투쟁에 대해서는 쇼의 저작(Shaw 2008, 50, 268-294)을 참조하라.

대열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념일 오전에 한 시간 동안 차베스의 생애와 그의 비폭력 사회정의 실천 운동의 유산을 배우고 오후에는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다(Lloyd-Moffett 2005, 49). 차베스와 NFWA가 외친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Sí, se puede)는 2008년 버락 오바마의 선거유세전 구호 “Yes! We Can”으로 재탄생했다(Shaw 2008, 92).

아울러 차베스의 투쟁과 그 유산은 우리로 하여금 치카노로 대변되는 다양한 이주민과 그들의 초국적 생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권고한다. 특히 미국 내 치카노는 기존 영역의 변화와 새로운 경계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재일 뿐만 아니라 다민족다문화적 환경에서 파생되는 갈등과 새로운 적응을 예증한다. 더욱이 치카노의 영향력 확대는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미국화 경향이 전반적으로 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라틴아메리카화라는 만만찮은 역방향의 전환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런 관점에서 치카노의 존재는 ‘세계화’가 지닌 복잡성, 즉 강대국과 후발국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면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cuña, Rodolfo(2007), *Occupied America: A History of Chicanos*, 6th ed., New York: Longman.
- Alaniz, Yolanda and Megan Cornish(2008), *Viva La Raza: A History of Chicano Identity and Resistance*, Seattle: Red Letter Press.
- Chun, Ki-Sun(2003), "Social Situation and Cultural Identity of Hispanics in USA,"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6, No. 1, pp. 259-294.
- Dalton, Frederick John(2003), *The Moral Vision of César Chávez*, Maryknoll: Orbis Books.
- "El Plan Espiritual de Aztlán"(1972), in Luis Valdez and Stan Steiner(eds.), *Aztlán: An Anthropology of Mexican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Alfred Knopf, pp. 402-406.
- FBI files, <http://foia.fbi.gov/foiaindex/chavez.html>
- Ferriss, Susan and Ricardo Sandoval(1997), *The Fight in the Fields: César Chávez and the Farmworkers Movement*, Orlando: Harcourt Brace.
- Ganz, Marshall(2000), "Resources and Resourcefulness: Strategic Capacity in the Unionization of California Agriculture, 1959-1966,"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5, No. 4, pp. 1003-1062.
- \_\_\_\_\_(2009), *Why David Sometimes Win: Leadership, Organization, and Strategy in the California Farm Worker Movement*,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rcía, Mario T.(ed.)(2007), *The Gospel of César Chávez: My Faith in Action*, Lanham and New York: Sheed & Ward.
- García, Richard A.(1994), "César Chávez: A Personal and Historical Testimony," *The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63, No. 2, pp. 225-233.
- Gómez-Quíñones, Juan(1990), *Chicano Politics: Reality and Promise, 1940-1990*,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Gonzalez, Juan(2000), *Harvest of Empire: A History of Latinos in America*, New York and London: Penguin Books.
- Gordon, Robert(1999), "Poisons in the Fields: The United Farm Workers, Pesticides, Environmental Politics," *The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68, No. 1, pp. 51-77.
- Gutiérrez, David G.(1995), *Walls and Mirrors: Mexican Americans, Mexican Immigrants and the Politics of Ethnicit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utiérrez, Ramón A.(2001), "Unraveling America's Hispanic Past: Internal Stratification and Class Boundaries," in Chon A. Noriega et al.(eds.), *The Chicano Studies Reader: An Anthology of Aztlán, 1970-2000*, Los Angeles: UCLA Chicano Studies Research Center Publications, pp. 371-387.
- \_\_\_\_\_(2009), "Chicano Struggles for Racial Justice: The Movement's Contribution to Social Theory," in Ramón A. Gutiérrez and Patricia Zavella(eds.), *Mexicans in California: Transformations and Challenge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 94-110.

- Hammerback, John C., and Richard J. Jensen(1998), *The Rhetorical Career of César Chávez*, College Station: Texas A & M University Press.
- Hammerback, John C., and Richard J. Jensen(eds.)(2002), *The Words of César Chávez*,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2001), *Je Gook(Empire)*, Soo-Jong Yoon(trans.), Seoul, Korea: Ihak-Sa.
- Huntington, Samuel(2004), “The Hispanic Challenge,” *Foreign Policy*, Issue 141, pp. 30-45.
- Jenkins, J. Craig and Charles Perrow(1977), “Insurgency of the Powerless: Farms Workers Movement(1946-1972),”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2, No. 2, pp. 249-268.
- Jensen, Richard J., Thomas R. Burkholder, and John C. Hammerback(2003), “Martyrs for a Just Cause: The Eulogies of César Chávez,”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67, No. 4, pp. 335-356.
- Kim, Yoo-Seok(2008), “The Chicano Movement in the Southwest U.S. in the 1960s: The Influence of ‘Pro-Cuban Revolutionaries’,” Unpublished M.A. Thesis, Yonsei University.
- Klor de Alva, J. Jorge(1998), “Aztlán, Borinquen, and Hispanic Nationalism in the United States,” in Antonia Darder and Rodolfo D. Torres(eds.), *The Latino Studies Reader: Culture, Economy & Society*, Malden an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pp. 63-82.
- Lee, Seong-Hun(2006), “Emergence of Chicano Nationalism and Chicano Movement in the 1960s,” *Latin American Affairs (currently, Korean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Vol. 25, No. 1, pp. 155-178.
- León, Luis D.(2005), “César Chávez and Mexican American Civil Religion,” in Gastón Espinosa et al.(eds.), *Latino Religions and Civic Activism in the United State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53-64.
- \_\_\_\_\_(2007), “César Chávez in American Religious Politics: Mapping the New Global Spiritual Line,” *American Quarterly*, Vol. 59, No. 3, pp. 857-881.
- Levy, Jacques H.(1975), *César Chávez: Autobiography of La Causa*,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Lloyd-Moffett, Stephen R.(2005), “The Mysticism and Social Action of César Chávez,” in Gastón Espinosa et al.(eds.), *Latino Religions and Civic Activism in the United State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35-51.
- \_\_\_\_\_(2008), “Holy Activist, Secular Saint: Religion and the Social Activism of César Chávez,” in Gastón Espinosa and Mario T. García(eds.), *Mexican American Religions: Spirituality, Activism, and Cultur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106-124.
- López, Fred A.(1992), “Reflections on the Chicano Movement,”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9, No. 4, pp. 79-86.
- Martínez, Elizabeth(1998), *De Colores Means All of Us: Latina Views for a Multi-Colored*

- Century*, Cambridge: South End Press.
- Matthiessen, Peter(1969), *Sal Si Puedes: César Chávez and the New American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 Muñoz, Carlos(2007), *Youth, Identity, Power: The Chicano Movement*, 2nd ed., London and New York: Verso.
- Oropeza, Lorena(2005), *¡Raza sí! ¡Guerra No!: Chicano Protest and Patriotism during the Viet Nam War Er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lmer, Stanley H.(2006), “The Power of Numbers: Settler and Native in Ireland, America, and South Africa, 1600-1900,” in Steven G. Reinhardt and Dennis Reinhartz(eds.), *Transatlantic History*,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pp. 85-194.
- Pawel, Miriam(2009), *The Union of Their Dreams: Power, Hope, and Struggle in César Chávez’s Farm Worker Movement*, New York and London: Bloomsbury Press.
- Rodríguez, Joseph A. and Vicki L. Ruiz(2000), “At Loose Ends: Twentieth-Century Latinos in Current United States History Textbooks,”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86, No. 4, pp. 1689-1699.
- Rosales, Francisco A.(1997), *Chicano!: The History of the Mexican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Houston: Arte Público Press.
- \_\_\_\_\_(2006), *Dictionary of Latino Civil Rights History*, Houston: Arte Público Press.
- Shaw, Randy(2008), *Beyond the Fields: César Chávez, The UFW, and the Struggle for Justice in the 21st Centur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reet, Richard S.(1996), “The FBI’s Secret File on César Chávez,” *Southern California Quarterly*, Vol 78, No. 4, pp. 347-384.
- U.S. Census Bureau(2011), *The Census Briefs, The Hispanic Population: 2010*, pp. 1-16, <http://www.census.gov/prod/cen2010/briefs/c2010br-04.pdf>

Article Received: 2011. 07. 12

Accepted: 2011. 07. 29